

등록 일자 : 2008.09.29 22:40

[시민과 함께하는 TEAF 2008] 동양사상 모티브...내면의 세계 표현 (2) 데이비드 파커



데이비드 파커씨가 김서현씨 등 시민들에게 샐러드보울로 만든 종과 심장박동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주부 박현숙(38·중구 태화동)씨가 두 자녀와 함께 미국작가 데이비드 파커씨의 작품 '심장박동소리'를 체험했다.

안내문을 따라 제각각 금속막대를 감싸줘자 높낮이가 각기 다른 3개의 종이 한꺼번에 울린다. 손바닥의 미세한 전율을 각각의 금속막대가 감지한 뒤 뒷쪽에 설치된 투명종으로 일제히 신호를 보내면 이내 체험자의 심장박동과 똑같은 속도로 종소리가 울려퍼진다.

는 느낌이랄까..., 묘한 기분이 드네요."

"나와 아이들의 심장이 함께 뛰

또 다른 체험자 김서현(37·남구 달동)씨는 "예술가의 창작성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가 만든 기계부속품 같아요. 제작 모티브가 무엇인지, 어디서 이런 원리를 찾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다.

시민들의 감상을 듣고 '훌륭한 관람평'이라고 말하는 파커씨. 한국인을 아내로 둔 그는 그래서인지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게다가 중국에서 유학하며 도교,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사상을 공부해서인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이면의 것을 탐구하고 느껴줄 것을 기대한다.

"심장은 감정이나 생각의 근원입니다. 박동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기간 내면의 세계를 걸으며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그는 헬스장과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구에서 제작원리를 얻어냈다.

"미학적 구조물은 아니지만, 절간의 풍경소리와도 같은 종소리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여유움을 선사하지요."

그는 최고의 감상포인트를 알려주는 것도 잊지않았다.

"촉각과 청각만을 이용해서 심장박동소리만 들으세요. 시선은 전면 탁트인 태화강에 고정시키구요. 삶과 같이 강물 또한 무심히 흐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